



컨버전스 시대 승부처 '멀티기능' ④ 해외 단말

음악·방송 '주도' 새로운 트렌드 창출

쿼티 및 모션센서 휴대폰도 주목 ... 삼성전자·LG전자 '선점'

모바일 기기의 컨버전스는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추세일 만큼 시대적 요청이다. 이미 카메라폰 열풍이 세상을 휩쓸고 간 이후 음악 기능 휴대폰이 시장을 주도하더니 모바일방송 휴대폰 또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모션센서를 탑재하거나 쿼티 자판을 채용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도 있다. 해외 휴대폰들의 컨버전스 흐름을 짚었다.

글 | 김종율 기자(people@cellular.co.kr)

모바일TV 휴대폰

국내에서 DMB폰이 주목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DVB-H 및 미디어플로 휴대폰이 화제이다. 이들 모바일TV 휴대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은 다른 아닌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국내 업체이다.

LG전자는 허치슨사를 통해 DVB-H폰(모델명: LG-U900)을 출시했으며, 삼성전자는 허치슨 및 텔레콤 이탈리아를 통해 DVB-H폰(P910)을 출시했다. LG-

U900'은 2.2인치 와이드 LCD 채용했으며, 최대 3시간 이상의 실시간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3G DVB-H폰' SGH-P920과 SGH-P910은 실시간 TV 시청은 물론 양방향 데이터서비스, 멀티 태스킹 등 각종 첨단 기능을 지원한다.

미디어플로 방식 휴대폰도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서비스를 개시한 사업자가 없어 상용화가 되진 못했다.

퀵티 휴대폰

퀵티 자판 채용 휴대폰은 컨버전스의 대안이라기 보다 새로운 트렌드 창출로 봐야 한다. 캐나다 림의 세계 시장 공략 가속화와 맥을 같이 하는 퀵티 자판 휴대폰은 비즈니스맨들이 메일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부분의 메이저 업체라면 이에 대응하는 휴대폰을 출시했을 정도.

최근 해외서 출시된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SGH-i320'가 주목된다. 두께 11.5mm로 날씬하면서 카메라를 갖췄다. 무게 95g이고, 윈도 모바일5.0과 2.2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나 모바일 메일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는 간단하게 사진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송수신 할 수 있다.

모토로라가 작년에 출시한 'Q'도 유명하다. 두께 11.5mm로 레이저 휴대폰의 자매품으로 불린다. 320×240 픽셀의 컬러 디스플레이, 1.3메가픽셀 카메라, 미니 SD카드 슬롯을 탑재했다.

키보드를 강조한 휴대폰으로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듀얼 키보드 휴대폰(W-ZERO3)도 있다. 윌컴과 샤프,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이 제품은 휴대폰용 숫자 패드와 캐릭터 입력용 풀 키보드 등 2개의 키보드를 탑재했다. 2.8인치 VGA(640×480 픽셀) 표시 액정 디스플레이도 업계 최초이다.

HDD 휴대폰

음악 기능은 해외 휴대폰 시장의 최대 화두이다. 이미 일반적인 경향으로 불리고도 있지만 최근 좀더 대용량을 지원하기 위해 HDD도입을 시도한다는 게 특징이다.

소형HDD 채용 휴대폰 출시의 선두 업체로 불리는 삼성전자는 8G까지 확대시켰다. 여기에 노키아와 소니 에릭슨이 경쟁을 선언하고 있다. 노키아는 전통적으로 대량 유통이 강하다는 이점을 내세워 삼성전자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으며, 소니에릭슨은 음악플레이어의 대명사인 '워크맨'을 휴대폰에 삽입한 컨셉인 '워크맨 폰'으로 삼성전자 및 노키아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외 하반기 출시 예정인 모토로라 제품도 있다. 업계에서 모토로라 제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16G바이트 용량의 HDD를 채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공식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모토로라는 이미 컨셉을 공개하기도 했다.

모션센서 휴대폰

동작인식 휴대폰으로 불리기도 하는 모션센서 휴대폰은 사람의 움직임을 휴대폰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센서를 탑재한 경우. 단지 사람의 움직임만을 인식토록 할 땐 3축센서를, 방향까지 감지토록 할 경우 6축센서를 탑재한다.

작년 삼성전자 등이 모션센서 탑재 휴대폰을 출시할 때만 해도 시장 성장은 확실해 보였지만 불행히도 아직 뚜렷한 입지를 굳히지 못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6축센서 탑재 휴대폰 출시를 계속 시도하는 분위기여서, 성장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에 발맞춰 소니에릭슨은 최근 모션센서를 탑재해 사용자의 달리는 스피드·거리·시간 등을 잴 수 있도록 한 'W710'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도코모는 컵 모양을 형상화한 휴대폰 'N702iS'에 센서를 내장해 액체의 움직임을 표현한 UI를 실현하기도 했다. 이 휴대폰은 센서로 인해 각종 기능이 실현된다. 주소장의 적외선 송신은 단말을 기울이면 물소리와 함께 송신된다. 단말을 뒤집으면 카운트가 시작되는 타이머 기능도 있다.

VGA 액정 휴대폰

지금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대세는 QVGA(240×320) 액정이지만 최근 VGA(640×480 픽셀) 지원 휴대폰도 등장하고 있다. VGA는 QVGA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해상도 표시가 가능하다. 액정이 기능과 무슨 상관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액정의 픽셀이 높아지면 콘텐츠를 구현하기 용이해진다. 현재 세상에는 VGA 액정 채용 휴대폰이 단 2종만 나와 있다.

최초 VGA 액정 휴대폰은 샤프가 출시했다. 2.4인치 액정이다. 이어 듀얼 키보드로 앞서 소개됐던 휴대폰(W-ZERO3)도 VGA 액정 채용을 자랑하고 있다. 2.8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AVG를 실현했다는 게 샤프 제품과 다르다.

해외 3G 단말 스펙

해외 단말 업체들의 컨버전스 동향을 살펴보는 데서 3G 단말 스펙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 업체들이 넣을 것은 넣고 빼는 것은 빼면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 북미에서 발표된 EV-DO 단말기는 36개 정도이다. 이를 분석했을 때 관심을 끄는 카메라의 경우, 1.3M 픽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부 2M픽셀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세는 아니다. 업계 평가처럼 올해 2M 및 3M 제품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란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모리의 경우, 점차 외부 메모리 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50% 이상의 단말기들이 외부 메모리를 채용하고 있었다. 마이크로SD를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부 메모리는 128M 지원 제품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64M바이트 정도였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240×320픽셀과 176×220픽셀 지원이 혼재돼 있다.

서유럽 WCDMA 시장에는 현재 60여개의 휴대폰이 발표됐다.

카메라는 북미 EV-DO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1.3M 픽셀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2M픽셀로 진화를 하고 있다. 작년 말 샤프가 보다폰에 3M픽셀 카메라폰을 공급하기도 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였다.

외장 메모리는 SD카드 지원이 대부분인 가운데, 트랜스 플래시도 일정정도 영역을 가지고 갔다. 내부 메모리 용량은 제각각이었다.

메인 디스플레이 역시 북미 EV-DO와 마찬가지로 240×320픽셀과 176×220픽셀 지원이 혼재돼 있었다. **□**

